

재키와 다이애나의 패션 스타일 연구

이현영* · 김윤경 · 박혜원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I. 서론

자기만의 향기와 개성으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패션 아이콘을 흔히 스타일 아이콘이라 부른다. 이는 어떤 유행의 정보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흡인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패션을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코드가 된다.

최근 복고풍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각 시대를 대표하던 스타일 아이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키 스타일', '다이애나 스타일'은 여성에게 있어 선망의 대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패션계에 많은 디자인 영감을 주고 있어 그녀들만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여인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조형적 특성과 복식 이미지를 분석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현대 패션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패션관련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 이후의 패션 컬렉션 및 정보지를 통해 반영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스타일 분석에 있어 두 여인의 세계정상의 시기와 그 이후 일반인으로서의 시기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디자인 특성과 복식 이미지를 서술하였다.

II. 결론 및 요약

첫째, 재키의 퍼스트레이디 시절(1기)의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면 60년대를 대표하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자신의 지위에 맞추어 실용적이고 심플한 세련미의 정숙한 미니멀리즘을 연출하였다. 심플한 무릎길이의 A라인 코트와 H라인 수트에 무늬가 없는 화이트, 베이지, 크림색을 주조로 하여 짧은 미국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에 진주 목걸이와 필 박스 모자로 자신의 외형적 결합을 센스 있게 커버하였다. 한편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재혼 후(2기)에는 사회적 지위 변화와 함께 모던하고 과장되고 사치스러운 과시적 미니멀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심플한 미니멀리즘 라인을 고수하면서 그 길이가 짧아졌으며 대담한 로고나 다양한 패턴과 장식성이 큰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부유함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제트 족(Jet-Set Look)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다이애나의 영국왕세자비 시절(1기)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면 영국 왕실의 권위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정형화된 귀족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깨가 강조된 V라인의 수트나 드레스의 경우 소매나 칼라 등 디테일이 강조된 실루엣에 같은 색의 구두와 모자, 핸드백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졌다. 한편 찰스 왕태자와의 이혼 후(2기)에는 그녀의 변화된 환경을 패션을 통해 자유로운 우아미로 표현해내고 있다. 중성적 매력의 컷트형 짧은 헤어스타일은 과감한 노출과 몸에 피트 되는 화려한 드레스와 함께 품위를 잃지 않으나 자유로운 다이애나를 보여주었다.

셋째, 재키와 다이애나의 패션 1기는 두 사람 모두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으로 자국 디자이너에 의해 재기는 미국의 심플함과 전보적인 모습을, 다이애나는 왕실의 위대함과 권위적인 모습을 스타일로 만들어 나갔다. 한편 2기의 시기에는 지위를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며 유명 디자이너를 통해 내면의 자아를 표현함으로서 또 다시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상의 재키의 깔끔하고 모던한 라인은 로맨틱 패션 트렌드에 지속적인 디자인 영감을 주고 있으며 다이애나의 경우도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액세서리 라인이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